

장롱의 부분명칭 연구¹

조숙경² · 강호양^{† 3}

Study on Terminology of Wardrobe¹

Sook-Kyung Cho² · Ho-Yang Kang^{† 3}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wardrobes to examine how the terms have been changed by comparing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in Chosun Dynasty and contemporary furniture since the traditional furniture terms and forms have been changed like our life culture. For chests and wardrobes, approximately 26 terms were used in Chosun Dynasty. However, only five of them are currently used for top panels, hinges, drawers, mirrors, and columns. For bedroom cabinets, 27 terms are used and 4 of them are changed with the same meaning. The change of the terminology results from the life culture mostly. While the Chosun Dynasty furniture terms were mostly presented as the Korean and Chinese language, in the contemporary furniture ones Korean and Chinese together with English are used. The English terms' usage results from hardwares imported from overseas. The terms derived from the three different languages are presented not only in the wardrobes but also other pieces generally.

Keywords: wardrobe, terminology, furniture.

1. 서론

1-1 연구목적

1. 논문접수: 2009. 12. 27.; 심사: 2010. 02. 01.; 게재확정: 2010. 03. 15.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KRF 200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2. 서일대학 생활가구디자인학과, Dep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Korea, 131-702.

3.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College of Agri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Ho-Yang Kang (E-mail: ykang@cnu.ac.kr).

현대가구는 그 쓰임의 목적에 따라서 가정용, 사무용, 학생용, 부엌가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에서 쓰이는 가구를 총칭하는 가정용 가구는 쓰이는 공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침실, 거실, 부엌가구로 나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학생용 가구와 서재가 있는 경우는 서재가구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부엌가구와 학생용가구는 가정용가구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시장의 규모와 쓰임새가 크므로, 크게 가구의 종류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의미하는 가정용 가구는 침실과 거실가구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가구의 종류뿐 만 아니라 가구의 부분 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보급하는 주체는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칭은 영업사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궁극적으로는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계까지 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다시 잠재고객인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순환을 살펴보면 가구업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가 분명해지나, 실제적으로 하나의 명칭이 탄생되는 것은 연구나 검증이 없이 의미전달이 가장 쉬운 단어를 나름대로 골라 사용을 시작한다는 데 있다. 어느 한 기업에서 쓰기 시작한 단어가 외부로 전달되어 당연하게 쓰여 지는 시점에 다다르면, 이미 가구의 전문용어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구관련 업체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로 인한 혼선이 생기며, 이는 업계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 및 학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침실가구 중에서 장롱의 부분별 명칭을 조선시대와 현대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명칭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쓰이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구관련 용어들의 변화과정을 인식하고 올바른 용어의 발생 및 정립을 위한 자료의 근간을 이루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는 장롱의 부분별 명칭을 조선시대와 현대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조선시대 장롱의 기능과 부분명칭을 조사하며, 현대의 장롱기능과 부분명칭을 조사하고, 이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한다.

연구방법은 가구관련 전문서적을 통하여 장롱의 기능 및 부분명칭에 관련된 사전적의미를 조사한다. 조선시대의 장롱은 서적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현대의 장롱은 가정용가구를 생산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작자나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기업규모의 보루네오, 중간규모의 장인가구, 그리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파로마가구를 선정하여 실제 가구업체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명칭의 실태를 파악한 후, 조사결과를 조선시대와 현대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2. 조선시대와 현대의 장롱 비교

2-1 조선시대 장롱의 의미와 기능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장과 농의 범위를 현대의 장롱과 비교할 수 있도록 2·3층 장 처럼 옷과 이불을 수납하는 용도로 쓰인 것에 대하여 한정한다.

2-1-1 장

현대에 장롱이라고 불리는 가구는 조선시대에는 ‘장’과 ‘농’으로 따로 불리고 사용되었다. 본장에서 언급되는 ‘장’은 안방과 사랑방에서 옷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말하며, 부엌에서 사용된 ‘찬장’과 같이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제외한다.



Fig. 1. Double Wardrobe, Chosun Dynasty 19C, Private Collection.

장은 안방과 사랑방에 놓여졌으며, 주로 안방에서 사용된 의류 수납 가구를 말하며, 구조는 분리되지 않은 한 층으로 되어 있다. 위에는 개판, 가운데는 몸체, 아래는 다리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단에는 간혹 서랍이 있고, 몸체의 여닫이문을 열면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금구장식이 주를 이루며, 서랍과 문에 고리나 들쇠가 부착되어있다. 용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의걸이장, 버선장, 솜장, 이불장으로 나뉘며, 쓰인 재료에 따라 비단장, 샷자리장, 지장, 죽장, 화각장, 자개장, 용목장, 먹감나무장, 오동장 등이 있다. 또한 장식과 층수에 따라 단층장, 나비이층장, 팔만자문삼층장, 원앙삼층장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배 1993). <Fig. 1>의 이층장은 다리위에 두 줄의 머름칸을 만들어 장의 깊이를 깊게 하여 많은 옷을 수납하도록 하였으며, 위에는 한 층의 머름칸만을 두어 높이를 맞추고, 머름칸과 비슷한 서랍을 천판 밑에 두어 하단부와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2-1-2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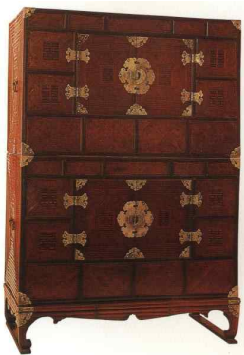


Fig. 2. Bamboo Double Chest, Chosun Dynasty 19C, Private Collection.

농은 안방에서만 사용된 의류 수납가구로 한 층씩 몸체가 따로 제작된 것으로 한 층위에 다른 한 층을 포개어 놓은 구조이다. 한 층으로 제작되고, 외관으로만 분리해 놓은 듯 보이는 장과는 다른 구조이다. 농은 형태에 따라 다리 없는 함을 이중, 삼중으로 포개놓은 것과 장처럼 농의 하단에 마대(馬臺)를 붙인 것으로 분류되는데, 이 마대도 빼어낼 수 있게 만들어진 것도 있다. 장과 비슷한 형태이나 네 귀에 기둥이 없고, 위에 이마받이나 개판이 없으며, 기둥과 연결되는 쇠목과 동자, 쥐벽칸, 머름칸 등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다(배 1993). 장과 같이 쓰인 재료는 샷자리, 종이, 대나무, 자개, 먹감나무, 오동나무 등이 있다. <Fig. 2>의 이층농은 나무로 된 백골에 대나무를 붙여 만든 것으로 대나무의 둥근 곡면에 의해 반사되는 빛의 효과가 특징이며, 화려한 주석장식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2 현대 장롱의 의미와 기능

현대 장롱은 과거의 장과 농이 합쳐진 것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옷과 양말, 넥타이 등 소품을 포함하여 이불까지 수납이 가능하다. 혼례용가구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내부구조에서 이불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았으나, 입식생활의 확대에 의한 침대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불공간의 영역이 작아지고, 옷, 넥타이, 양말 등 소품의 수납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경에 들어서면서 보다 큰 주거공간을 확보한 현대인들은 불박이 장이나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 옷과 소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롱을 기피하는 젊은층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롱은 크기에 따라 8자, 9자, 10자, 11자, 12자 장롱으로 나뉘며, 높이가 천정까지 닿는 키높이 장롱과 벽에 고정된 불박이 장롱이 있다. 문을 여닫는 방법에 따라 여닫이 장롱, 슬라이딩 장롱, 접이식 장롱, 미닫이 장롱 등으로 나뉜다.



Fig. 3. Closet, Boruneo, 2009.

2-3 조선시대와 현대의 장롱 비교

조선시대와 현대의 장롱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주거문화의 변천과 같이 장롱 외의 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장롱의 요소만을 가지고 비교하고자 한다. 즉, 장롱의 종류, 기능, 재료, 구조와 규격에 중점을 두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조선시대의 장롱은 재료, 용도, 장식과 층수에 따라 구별되지만, 현대의 장롱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 분류된다. 기능측면에서 볼 때, 과거보다 현재의 장롱이 다양한 수납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 다르며, 재료는 목재중심의 조선시대와 달리 현대의 장롱은 목질재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자재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Chosun Dynasty and Contemporary Wardrobes

비교 항목	조선시대 장롱		현대 장롱
	장	농	
① 종류	-재료별: 비단장, 삿자리장, 지장, 죽장, 화각장, 자개장, 용목장, 떡감나무장, 오동장 -용도별: 의거리장, 이불장 -장식과 층수: 나비이층장, 팔만자문삼층장, 원앙삼층장, 이층장, 삼층장	-재료별: 지농, 죽농, 자개농, 떡감나무농, 오동농	-크기별: 8자, 9자, 10자, 11자 12자 -구조별: 키높이 장롱, 불박이 장롱
② 기능	-안방과 사랑방에서 사용된 의류 및 이불 수납가구	-안방에서만 사용된 의류 및 이불 수납가구	-의류 및 이불 수납가구
③ 재료	-종이, 대나무, 자개, 떡감나무, 오동나무, 화각, 비단, 금속장식	-종이, 대나무, 자개, 떡감나무, 오동나무, 금속장식	-MDF, 파티클보드, 무늬목, 자개, 합판, 집성목, 오동나무, 금속, 거울
④ 구조	-한 층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에서 공간이 위 아래로 구분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있어 굵은 기둥과 두꺼운 판재로 이루어짐 -의걸이장 안에 햇대를 설치	- 여러 층으로 되어있고, 외부에서부터 분리되어 쌓아올린 형태. -각 층이 분리되므로 기둥이 아닌 얇은 판재로 이루어짐	-한 층으로 되어있으며, 여러 개가 옆으로 나란히 늘어선 형태
⑤ 규격	-농에 비하여 높고 넓은 구조 -가로: 50~120cm -세로: 30~55cm -높이: 96~185cm	-가로: 75~82cm -세로: 39~42cm -높이: 112~129cm	-가로 8자: 2200~2250 12자: 3500~3670cm -세로 60cm -높이: 210~225cm

구조는 조선시대의 농처럼 층으로 쌓아올리는 것은 사라지고, 장이 옆으로 여러 개 늘어서는 형태로 바뀌었다.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현대가 커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영규가 쓴 목칠공예(2005), 한국의 목가구(1982)와 배만실 저의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1993)에 나오는 장과 농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외에 장롱을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는 50년대의 조선전통가구와 일본식 가구의 복합 형태에서 90년대에는 박스 형태로 변화되었다(정 1996).

3. 장롱의 부분명칭 변화

3-1 조선시대 장롱의 부분명칭

3-1-1 조선시대 장의 부분명칭

조선시대의 장의 부분 명칭을 아래 Table 2와 같으며, 대부분 순수 한글이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의 장에는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 많으며, 현재에도 사용하는 용어는 총 17개 용어 중에 천판, 서랍, 기둥 등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명칭의 풀이를 함께 기입하였다.

Table 2. Terms for Wardrobes in Chosun Dynasty (Park and Kim 2005)

명칭	명칭풀이	장 이미지
천판	장롱이나 소반 등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면의 널	
서랍	한 면이 없는 상자처럼 소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공간	
복판	문짝 한가운데의 판재	
문번자	복판을 끼워 넣거나 판이 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판의 둘레에 대는 번자	
쇠목	장롱을 짤 때에 앞쪽 두 기둥 사이에 가로질러 대는 나무	
귀벽칸	문판의 좌우에 위치한 널판	
가로동자	가로로 지른 동자	
머름칸	장과 농 따위에 있어서 문판의 아래나 위쪽에 위치한 널판	
기둥	세로로 길게 만든 각재나 원기둥	
벽선	기둥에 붙여 세우는 각목	
대판	장롱 따위의 밑바닥에 대는 큰 널조각	
족통	다리부분 전체를 일컫는 말	
개판	장이나 농의 천판에 양옆과 앞으로 뻗어 나오도록 댄 나무판	
세로동자	세로로 지른 동자	
선쇠목	장롱을 짤 때에 쇠목과 쇠목 사이에 세로 질러 대는 나무	
옆널	장롱이나 반닫이 등의 옆의 널판(측널)	
족대	장, 농, 상 등의 발밑에 건너대는 널	

3-1-2 조선시대 농의 부분명칭

조선시대의 장의 부분 명칭을 아래 Table 3과 같으며, 대부분 장의 명칭과 공통으로 쓰인다. 농에 나타나는 ‘들쇠’라는 것은 사례로 든 장에는 없지만, 조선시대 가구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명칭으로 장과 농의 명칭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와 3에 거론된 부분명칭 이외도 풍혈과 마대라는 것이 있는데, 풍혈은 기물의 둘레에 가로 돌아가며 구멍을 뚫거나 잘게 새겨 붙이는 꾸밈새를 말한다(박 1982). 마대는 장과 농 등의 받침다리 전체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한국 전통 목가구의 하단부는 말의 다리 및 발의 모양을 띤 마대 또는 마족 형태를 보인다(문 2010). 장과 마찬가지로 농에 쓰이는 명칭은 대부분 현대의 장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에도 사용하는 용어는 총 14개 용어 중에 천판, 경첩 등 2개에 불과하다.

Table 3. Terms for Chests in Chosun Dynasty(Park and Kim 2005)

명칭	명칭풀이	농 이미지
천판	하늘을 보고 있는 면의 널	
축널	장롱이나 반닫이 등의 옆의 널판(옆널)	
들쇠	기물을 들어 옮기거나 당기기 위한 금속장식	
선쇠목	장롱을 짤 때에 쇠목과 쇠목 사이에 세로 질러 대는 나무	
경첩	좌우나 상하의 두 날개가 축을 중심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구문짝의 문판과 기둥에 각각 박아 문을 여닫게 하는 금속장식	
앞바탕	나무가 상하는 것을 막고 장식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물쇠, 들쇠 등에 받침으로 대는 금속장식	
세로동자	세로로 지른 동자	
족대	장, 농, 상 등의 발밑에 건너대는 널	
동자	쥐벽칸이나 머름칸을 등분하고 힘을 보강하기 위해 댄 골재	
벽선	기둥에 붙여 세우는 각목	
문번자	복판을 끼워 넣거나 판이 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판의 둘레에 대는 번자	
머름칸	장과 농 따위에 있어서 문판의 아래나 위쪽에 위치한 널판	
쥐벽칸	문판의 좌우에 위치한 널판	
족통	다리부분전체를 일컫는 말	

3-2 현대 장롱의 부분명칭

현대장롱의 부분 명칭은 먼저 전문서적을 통하여 사전적인 조사를 하고, 가정용가구를 전문으

로 하는 가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조사하였다. 가구업체는 보루네오, 장인가구와 파로마가구가 참여하였으며, 현장에서 가구를 제작하거나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는 명칭들을 하나씩 조사하였다. 두 번째 업체를 방문 할 경우는 첫 번째 회사명을 기입하지 않아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조사에서 나온 기본적인 용어는 총14개이며, 이 중에서 조선시대의 명칭과 동일하게 쓰이는 것은 경, 천판, 서랍, 경첩이며, 기둥은 현대장롱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망레일은 양말 등을 담아두는 곳으로 금속망으로 되어있으며, 잡아당길 수 있어 레일(rail)이라는 영어단어와 합쳐진 것이다. 문짝이라는 용어는 도어(door)라는 영어와 혼용되어 쓰이며, 벅타이를 걸어두는 타이걸이도 ‘타이(tei)’라는 영어와 ‘걸이’라는 한글이 결합되어 사용된다. 경첩은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던 용어로 현재는 힌지(hinge)라는 영어로도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 가구업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모두 일치하며, 조선시대에 없었던 영어용어의 사용이 대두된 것이 특징이다.

Table 4. Terms of Contemporary Wardrobes

번호	부분명칭			현대 장롱	번호	부분명칭		
	보루네오	장인	파로마			보루네오	장인	파로마
1	천판	○	○		8	문짝,도어	○	○
2	옷걸이봉	○	○		9	지판	○	○
3	공기망	○	○		10	타이 걸이	○	○
4	뒤판	○	○		11	손잡이	○	○
5	망레일	○	○		12	경	○	○
6	선반	○	○		13	측판	○	○
7	서랍	○	○		14	힌지,경첩	○	○

3-3 조선시대와 현대 장롱의 부분명칭 비교

조선시대에 장롱에 사용되었던 용어 대부분이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장롱의 기능 및 구조 변화에 따르며, 장롱의 기능이 달라진 것은 주거환경의 변화가 가장 크다. 전통한옥이 아파트문화의 유입으로 주택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조선시대의 장과 농을 하나로 합친 현대의 장롱은 다양한 수납 기능이 추가되면서 부피가 커졌으며, 이에 따른 구조 및 제작방법도 변화되었다. 옷과 이불을 수납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불의 수

납공간이 작아지고, 몸에 걸치는 모든 물건들을 수납하는 용도로 바뀐 현대의 장롱은 타이겔이, 바지겔이가 부착되고, 거울을 내장하게 되었다. 모자, 가방, 그리고 스카프와 같은 악세사리도 같이 수납하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운반 및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선반의 높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다보, 서랍의 레일, 환기를 위한 환기통, 내부조명 등의 하드웨어가 장착되었다. 즉, 금속장식이외에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여 장롱을 만들었으므로 햇대나 들쇠 이외에 다른 하드웨어의 사용이 없었던 조선시대와는 달리 현대에는 레일, 다보, 바지겔이와 같은 하드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Table 5. Comparison between the Terms of Chosun Dynasty and Contemporary Wardrobes

조선시대에만 쓰였던 명칭(21개)	현대에만 쓰이는 명칭(22개)	공통으로 쓰이는 명칭(5개)	의미는 같으나 바뀐 명칭(4개)	
			조선시대	현대
복판, 문번자, 쇠목, 쥐벽칸, 가로동자, 머슴칸, 벽선, 대판, 족통, 개판, 세로동자, 선쇠목, 족대, 들쇠, 앞바탕, 동자, 햇대, 측널(옆널), 마대, 풍혈	측판, 레일, 발통, 타이겔이, 다보, 손잡이, 바지겔이, 선반, 지판, 아테, 망레일, 칸막이, 뒤판, 쌍자석, 바구니, 문짝, 궤도판, 경고정대, 걸레받이, 공기망, 옷걸이봉, 걸레받이	천판, 경첩, 서랍, 경, 기둥	족통	발통
			측널(옆널)	측판
			들쇠	손잡이
			햇대	옷걸이봉

또한 조선시대 장과 농의 마대는 현대에 들어 걸레받이라는 용어가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실용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 기인한다. 다양한 부자재는 입식문화의 원천인 서양에서 들어온 것으로 영어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졌으며, 순수한글과 한문으로만 되어있던 조선시대 장롱의 명칭이 현대 장롱에서는 영어명칭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시대와 현대의 장롱에 사용되는 부분명칭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비교기준은 조선시대나 현대에만 각각 쓰인 용어와 두 시대에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 그리고 의미는 같으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4. 결 론

주거문화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사용하던 가구가 없어지거나 변형된 형태로 발전하는 것처럼 가구분야에 쓰이는 용어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정용가구의 대표적인 품목인 장롱을 대상으로 장롱에 사용된 부분명칭들이 조선시대와 현대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장과 농에 쓰이는 부분 명칭은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대략 26개

정도이며, 이 중에서 현대에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것은 천판, 경첩, 서랍, 경, 기둥 등 5개에 불과하다. 현대 장롱에 쓰이는 부분 명칭은 약 27개이며, 조선시대와 의미는 같으나 부르는 명칭이 바뀐 것은 약4개이다. 부분명칭의 변화는 주거문화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며,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두 번째이고, 장롱을 만드는 재료의 변화가 세 번째 이유이다. 조선시대의 부분 명칭은 대부분 순수 한글이나 한문이며, 현대 장롱의 부분명칭은 한글, 한문, 영어가 섞여있다. 영어의 유입은 다양한 부자재가 국외로부터 유입되면서 마땅한 한글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3가지의 언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롱의 부분명칭은 비단 장롱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구에 관련된 용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구관련 명칭은 산업체에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용어의 형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한다.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학계와 산업체의 용어 통일은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은 물론 가구산업 전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내 가구사전 탄생의 근간을 이루는 꾸준한 용어연구가 가구관련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문선옥. 2010. 전통가구의 다리와 발 스타일 용어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Vol.21(1): 84.
박영규·김동우. 2005. 목칠공예. 솔출판사: 292.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238.
배만실. 1993.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99, 103.
정현술. 1996. 현대가구의 의장분석.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9.

논문 제출 안내

한국가구학회지 (vol.21/no.4)의 논문을 국문 규정 및 요령에 의거하여
2010년 5월 31일(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한국가구학회 편집위원장